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45호 [주제 제 25919호] 주제 107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49호

주체 107(2018)년 2월 13일 평양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하여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국가를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운 크나큰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웅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펼치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정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힘있게 벌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민족최대의 맹렬한 팽망성질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팽망성질을 끊임없이 맞이하고 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시고 물새 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 있으며 당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철석의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이 땅우에 온 세상이 부려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는 것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를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본분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오늘 인민 군대 앞에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지위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위력을 배방으로 다지고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정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나서고 있다.

나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절통같이 둘쳐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기를 제일군기로 높이 휘날리며 반제반미대결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질에 즐음하여 군사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려줄것을 명령한다.

△ 部군중장

안명건

△ 해군소장

김영선

△ 전학군소장

김명복 전혁주 손종록 리정목

△ 海군소장

김동길 김철웅 김명호 안성도 리성국 리영기 승용근 김정남 박봉길 김정환 리명일
방두옥 박익성 김창국 정영남 리경호 로경철 맹경찬 실성빈 김금철 김영환 렘을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기내 전신은 김정은 각하께서 새로 개진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각하께서는 공장의 어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진현대화정형과 생산설비를 구체적으로 묘해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식경계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단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한 실력을 보장할 수 있게 통합생산체계를 잘 구축해놓았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경차들을 보시었다.

김정은 각하께서는 평양무궤도전차

공장을 새제작수준의 무궤도경차

생산기지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자신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이 진행해 야 할 2단계 개선현대화목표를

정해 주시고 그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셨다.

인디아신문 『아시아 카바로 데일리』, 네덜란드인터넷잡지 『네델리오브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씨야의 인터넷신문 『루시아』, 두 에틸트신문 『알 암을 씨비야』,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 미 국의 UPI통신과 블스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탐구를 위한 국제친선발기, 에스파냐 바스크주체사상연구소조선네트워크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 각하께서 늦은 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만든 새형의 무궤도

전차를 타시고 시내를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무궤도전차를 타고 천연고를 밟았고 밀을 간다고, 운

총지도 편찮다고 평가하시었다고 전하였다.

인디아-아시아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로씨야의 라디오노보스씨통신, 인문인 『로씨야』, 멘데레스통신, 신문인 『로씨야 가제타』, 『플로몬스끼야 브라우다』, 멘데레TV방송, 엔데레TV방송, 로씨야 24TV방송, 인터넷참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 각하께서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 각하께서는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인디아-아시아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로씨야의 라디오노보스씨통신, 인문인 『로씨야 가제타』, 『플로몬스끼야 브라우다』, 멘데레스통신, 신문인 『로씨야』, 멘데레TV방송, 엔데레TV방송, 로씨야 24TV방송, 인터넷참자

보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경모의 정 표시, 국제기구대 표부 성원들 꽂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 토대를 마련해 주시었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꽂바구니를 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그들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지와 특출한 령도력으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 이끄시여 시대와 역사상에 영광을 끌어온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꽂바구니들을 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들의 명기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 할 것이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 있었다.

한편 이 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제22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한 중국손님들과 제중동포들이 꽂바구니를 전정하였다.

한편 이 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제22차 김정일화축전에 참가한 중국손님들과 제중동포들이 꽂바구니를 전정하였다.

위대한 강국의 시대에 더욱 만발할 불멸의 꽃

광명성절경축 제22차 김정일화축전 개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

을 맞으며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명 3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사회주의 위업

이 영원히 송송광구 할 수 있는 만년

기물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 전보적인 유화같은 신뢰심

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새차개

분출되는 위인정승의 풍족전이다.

붉게 피여 난 불멸의 꽃들마다에

혁명의 대성인이 시며 막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밟아

보시려는 만민의 뜨거운 지성의

세계가 어찌여있어 축전장은 홍모의

열기로 더욱 활기차진다.

태양정승의 꽃바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에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정중히 모셔져있다.

『위대한 강국으로 영광케 하는

주체조선에 만발한 김정일화축전

주제로 진행되는 축전에는 무역,

상,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

들과 각계 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정성껏 피운 수만상의

김정일화축전들이 전시되었다.

또한 제22차 조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 해외동포들

과 주조 어려나 외교 및 국제

기 구데 표부들, 외국의 천선 및

평양성당단체들, 인사들의 뜻은

지성이 어린 위인정승의 꽃들이

전시되었다.

개막식이 13일 김정일화축전을

전시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박광호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부위원장 양형석동지, 내각부총리兼外交通지, 총재조선인민위원회부위원장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영상과 함께 축전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 평도업적을

전개해온 조선인민의 헌신과 열

정을 축복해주시는 조선인민의 고결한 충성과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보여 주게 될 것이다.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령에 평도밀에 주체

조선인민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강옹한

기성이 만천하에 힘 있게 파시되고 있

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광명성절

을 맞으며 제22차 김정일화축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조국과 민족, 시대와 혁명 앞에

영구불멸할 염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영상과 태양의 존함은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전보적인 유화마다

에 정의와 창의의 상징으로 깊이

간직되어있다고 하면서 그는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크나큰 자랑이고 더 없는

영광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김정일화축전과 함께 전국 각지와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불멸의 업적 만대에 길이 빛나리

강철의 영장, 군사의 영재

인류 역사의 깊이에는 이름 있는 군사가, 장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처럼 탁월하고 독창적인 군관성 사상과 불멸봉호의 정예적인 정도로 최강의 혁명무역을 키우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었으며 무진 막강한 군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신 위대한 명장은 어려운 절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승리 하며 전진하여 온 영광스러운 투쟁로 정은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 힘 속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발전 되고 나라의 군력이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라섰으며 사회주의 수호전과 부강조국 건설에서 세기적 인기적과 번혁이 이룩된 널대를 빛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0년대에 선군정치를 계면적으로 철저히 으로써 주체혁명무역 강화에서 력사적 전환을 이룩하시었으며 제국주의 친합세력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 통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 수호전을 위대한 승리에 이끄시었을 뿐 아니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험난한 행군으로 전면시키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공화국 대원수 회복을 수여해드린 6월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민민은 결경한 혁명적원칙성과 무비의 단체, 비범한 지략과 족출한 정치실력을 떠나서는 군사적 풍랑을 헤아리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북으로 전환시키시며 우리 국대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 강철의 명장, 군사의 영재이신 우리 장군님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끌어끼고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존엄한 시련의 시기 훌륭한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최정예 전투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 수호전을 험난한 승리에 이끄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 거대한 뼈

이것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자리에서 이전 흐린 국방상이었던 야조보가 그의 백파전서적인 군사지식에 완전히 냉을 풀고 터놓은 전정의 목소리이다.

그후 야조보는 자신의 회상담에서 우리 장군님을 이렇게 칭송하였다.

『김정일동지, 그분은 한마디로 군사에서도 이 세상의 전자〈하느님〉이시다.』

야조보와 같은 직업적인 군인들도

머리를 숙이며 칭송의 목소리를 아

끼지 않은 우리 장군님이 시아말로

탁월한 군사의 영재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혁명을 하

자면 군사에 전통해야 한다는 지론

을 내세우시고 학창시절부터 군사부

야에 대한 지식의 힘을 부춘 히

쌓으시였으며 당시 중앙위원회 회에서

당과 국가, 군대의 전반사업을 맡도

하시는 나날에도 군사부야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직들과 군사부

도서들을 수많이 탐독하시였다.

어느한때 군사부문의 한 전통가

가 최신학문기술에 대한 상세한 자료

도록 빠르게 찾았으므로 시간을 내

어 조사한적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싶은 자료를

인자로 얻어낼수 없었다.

인민군대의 사업을 보려 하시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죽석에서 그가 어느

도서판에 가서 어느 책을 읽어보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짚어주신 도서

판에 찾아간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자기가 찾았던 책이 있었다.

어머니 수령님께서 우리 장군님의

지식창고에는 없는것이 없다고, 고양

이 풍과 관련한 자료도 있으면

제작해주시겠다고 험하고는

인민군대에서 찾으셨습니다.

작업도 다 뒤에서 한다. 전쟁이 일

어나도 싸울은 진지에서 한다. ...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지휘관들의 가슴은

뜨거워울었다.

늘 병실에서 생활하는 군인들도

비상히 어려운 것은 창문,

참으로 명사를 허락해주시고 풍려

만을 더 이상 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천출위인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미제무장 간歇선 《푸른 블로》호사

건, 《EC-1 2 1 2 2 4》형 칠기비행기사

건, 판문점 사전을 비롯하여 미제의

전쟁과 폭탄에 향유되는 군사

기지와 전투기, 그리고 전투기

</div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참신한 정치사업

일군들의 기수적역할을 높여주는데 모를 박고

위원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최근 위원군의 면모가 새롭고 치고있다. 군문화회관이 읍지구 중심에 빛나며 일어서고 학교 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장 공장을 이 새기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강장의 산물인 도봉발전소를 비롯한 종수력발전소들이 만부하의 등을을 높이 풀리고 능력이 큰 역할발전소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자랑이다.

이번 성과의 밀비방에는 당원들과 군로자들의 애국심을 세우는 분출시킨 군당위원회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세가 놓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과 함께 둘째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냄비 성실히 일하면 군기기관 일군들이 말하는 지역적 특성이 견고한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목표수행에서 문제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당원군들은 대중의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소원령 기슭에 보는 사람마다 친하고 누구나 살고살아 있는 사회주의 무통도원을 꾸려놓았다.

농장에서는 자체로 꾸린 수십여 창농력을 지휘하고 일군들이 밭에 올라온 농장을마다에서는 경쟁열풍이 세워지면서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군당위원회가 일군들의 사업을 바로잡아주는 사업을 앞세운 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판점이 바로섰다고 하여 일군들의 기수적역할이 저질로 놓이지는 것은 아니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일원화로 이전하면서 일군들을

이끌었다.

군당위원회는 일군들을 일원화로 이전하면서 일군들을

이끌었다.

섬나라깡패들의 불법무도한 칼부림

긴장격화를 노린 불순한 불장난

일본은 장녀 절개자방하듯 빠하면 『법치』에 대해 오만스럽게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일본특유의 도덕적서열상과 민족내부주의의, 불법무법의 정치적칼부림을 정당화하기 위한 한 가지 사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살벌하게 벌어지는 충돌에 대한 대처기적인 폭압수용은 섬나라반통들이 그 거지상스러운 허울마저 벗어던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일본 본경찰당국은 전 충현 가쓰시까지 무위장을 『고물상법위안』에 걸어 제포한 후에는 이를 일본 경찰과 사이다마리 경찰들로 부어진 할통수사본부는 그의 통행에서 충현조치로 솔금한 기록이 나타났다는 구실로 또다시 100여명의 무장경찰들을 내몰아 충현 도교도본부와 충현군의 철, 조선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미래재단』에 대한 애마마한 강제 수색들을 벌여놓았다. 이것은 일본반통들이 활동적인 충현 반압수용을 일으켰을 때마다 허위 씨면인 수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그 무슨 『고물상법위안』의 법을 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며, 처음부터 충현조치를 계획하고 감행한 계획적인 정치모략의 산물이다.

일본경찰당국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당시 충현 가쓰시까지 무위장에게 『고물상법위안』의 법을 끌어내고 그의 집을 참았으므로 출동이 살살이 뒤지는 망동을 부렸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를 다시 현행한 일본경찰당국은 생활에 구애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국조선위험화방법』을 불어대면서 미국과의 반통화국입찰공조행동 솔금한 기록이 있다는 얼토당토않은 생트필을 걸면서 충현 도교도본부와 조선학교지원 단체 등 충현조치들에 대한 탄압수용을 극복해보려고 시기발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언론들을 통해 대내적으로 떠들어대면서 어떻게 하나 일본사회에 반충현기운을 고취하고 있다.

현실은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얼마나 두지마지한 중에 국가, 범죄의 소굴로 전락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은 아직도 1923년 간토대지진에 일제가 어떻게 조선인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조선인』이 우물에 둑을 넣었다. 『불을 질렀다.』 등의 뮤언비어를 내밀리면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가장 일본인 총살에 대한 대처기적인 폭압수용은 일본의 한 부분이며 일본 반통들의 충현에 대한 칼부림은 곧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이다.

일본당국은 우리 군대와 민민의 치솟는 대립적개성과 보복의지를 뚜렷으로 보고 함정, 조선학교지원단체에 미리예치금 달려들어 마구 난량질한 경찰경계들을 배후조종한 장본인은 태우기 아닌 아예정된다. 아베는 대조선적대감이 빠지면서 빠져나온 일본인은 대개 일본인은 만남으로 계속 매달리며 도발을 일삼다가는 폴리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특별히 명심해야 한다.

박 철 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소장 담화

북남관계개선과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는바 당황당국은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하나 그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분별을 끊고 날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조선민도에서 진정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무기를 기쁨으로 맞이한 이후에 겨우나 풍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북남관계를 재개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온 세계가 환희에 넘쳐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북남이 하나로 핵